

국가암검진에 폐암 도입... '30년 이상 흡연자' 부터

복지부,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확정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해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이 추가로 도입된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고위험흡연자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검진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2016-20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은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마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은 2020년까지 암 발생률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는

목표 아래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암 정책의 4대 기본요소를 조 기검진, 진단 및 치료, 완화의료로 기본으로 마련했다.

국가암검진에 신규로 폐암검진 도입 추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개선

암 중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을 국가 암검진으로 추가 도입해 조기 발견을 통한 폐암의 사망률 감소를 추진한다. 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내년에는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통해 시범적으로 검진을 수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폐암 검진 대상기준 및 절차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폐암검진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도 개편해 국가암검진 수검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국가암검진에서 암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해 지원대상 선정의 불합리성이 지적돼 왔다.

아울러 의료급여 산정특례 자료를 활용, 암환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상소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암 의식 판정자의 확인검사 비용을 지원 하고 암검진의 질관리를 위해 전문인 력에 대한 교육을 실무중심으로 개 편, 확대 실시한다.

암생존자에 대한 통합지체제 구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유형

다양화

신규 설치할 권역별 통합지체센터 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 제 팀을 통해 암생존자 대상 의료·사 회·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사 회 타 기관과 연계한 암환자 사례관 리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 국립암 종합병원을 중앙·권역 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해 3월부터 시범사 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정형 및 자문 형 호스피스 사업을 시작으로 추진한 다. 기존 호스피스 사업은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항목의 세 분화 등 평가 체계를 개선해 질적 수 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신규 도입하는 소아호스피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 연구 를 실시하고 의료환경, 요구도 등을 고려해 소아호스피스 제공 모델 및 보상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암환자지리 정보체계 구축 등 암관리 위한 인프라 구축

국립암센터 전자기록 및 개인 연구자료기반의 국가 암 DB와 암종 별 연구결과에 따른 암종별 표준 DB 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밀의 료 구현을 위한 암데이터센터를 구축하 기로 했다.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를 통해 만 들어진 정보를 암예방, 치료 등 정밀 의료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암의 발생·사망·생존 등 질병변화 의 예측과 효과평가 등 암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암환자 지리지정보시스 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적 공조로 암 치료·예방 등 연구 정밀의료 기반 마련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를 추

진하고 이를 계기로 암정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정밀의료 의 기반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한국형 정밀 의료 코호트를 구축, 국민 10만명에 대한 진료·생활습관·유전체 등의 정 보를 수집·축적·공유하고 3대 전이 암(폐·위·대장) 환자 1만명을 대상 으로 유전체 자료를 확보, 정밀의료 기반 확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발암요인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암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 한 모니터링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립암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위 해 소아호스피스 등 공익적 사범사업 을 우선 수행하고 희귀난치암에 대한 치료 역량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수행할 예정이다.



미산무학여고 UCC '예술작품, 나와 나' 교육부 주최 공모전 대상

교육부가 주최한 '예술로 행복한 학교' 작품 공모전에서 미산무학여고 자교등학교(교장 박원근) 1학년 이민주, 김려빈, 김혜빈, 황서현 학생이 출품한 '예술작품, 나와 나' UCC가 전체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전국 초·중·고·고졸 대상으로 한 5개 분야(슬로건, 삽화 또는 로고, 포스터, 홍보음악, UCC 영상) 공모전 전체에서 대상을 차지해 더 값진 성과이다.

미산무학여고 UCC '예술작품, 나와 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웃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 학교, 우리 아이를 이야기로 가사의 영상에 담은 작품이다.

작품 줄거리는 집중이수제로 한 학기 동안의 음악수업을 돌아보며 예술교과를 통해 힘든 학교생활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고, 위로와 회복을 누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대상을 받은 이민주 학생은 "큰 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쁘고 UCC 만들기를 통해 내 꿈을 발견하게 돼 더 기쁘다"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수경 지도교사는 "공모전 공문을 보자마자 예술교육을 지향하는 우리학교 교육목표와 부합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지원했다"고 전했다.

박원근 교장은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밤늦은 시간까지 작품을 만드느라 고생하고 최선을 다해준 학생들이 정말 대단스럽다"고 격려했다.

학생들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더불어 상금 200만원, 지도교사에게는 교육부 주관 해외연수 특권이 부여된다.

미산무학여고는 9월 6일 대상 수상 학생들에게 학교장 표창장을, 지도교사에게는 학교법인(덕명학원) 이사장 표창장을 전달했다.

김호기 기자 khh@

모래로 들려주는 꿈같은 동화이야기

인천연화초 '샌드아트 공연 관람' 행사 실시



인천연화초등학교(교장 김현수)에서는 9월 8-9일 이틀간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샌드아트 공연관람' 행사를 했다.

이날의 행사는 모래판 위에 모래를 바탕으로 빛을 통해 영상을 주며 양손은 연필과 지우개가 돼 자유롭게 드로잉하는 샌드아트 공연예술의 세계를 체험하는 흥미진진함으로 시작

부터 설명이 가득했다.

샌드아트 샌드인나 김인나 강사의 공연이 시작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1-2학년 어린이들은 전래동화 '밭속 할머니와 호랑이'를 통해 약자를 괴롭히면 도리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교훈과 더불어 재미있는 모래 그림 속으로 빠져들었다.

또한 '동물 친구들과 만나오'를 통해 미술처럼 끊임없이 바뀌는 모래

그림을 보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어서 샌드아트 퀴즈 시간과 체험 이벤트까지 진행돼 어린이들의 눈은 반짝이고 "저요, 저요"하며 손이 번쩍 올라갔다.

3-4학년 어린이들은 전래동화 '호랑이 형님'에 빠져들며 호여 대해 다 한 번 가슴 깊이 느끼게 됐다. 그리고 연명 '세계는 하나!' 공연으로 모은 달라도 친구라는 어울림의 주제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심성을 갈게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빛과 모래가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샌드아트 공연은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감성을 자극해 딱딱한 교훈이 아닌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메시지로 다가왔다.

3학년 박신우 학생은 공연을 관람한 후 상키린 얼굴로 "신나고 재미있어서 공연이 끝난 게 정말 아쉬웠어요. 부모님과도 다시 샌드아트공연을 꼭 볼 거예요"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 대해 김현수 교장은 "앞으로도 기존의 교차, 교구 등을 활용한 교육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문화예술의 체험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 세계를 경험해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인성을 자연스럽게 기르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번 공연 관람이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에 관심을 두는 특별한 선물이 됐기를 바랍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인용민 기자 as@



천송이 꽃이 피운 아름다운 무대

인천정각중, 학생들의 재능 꽃 피우는 제8회 정각제 개최

인천정각중학교(교장 송석찬)는 9월 2일 학생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 축제로 '제8회 정각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학생들이 일 년 동안 준비하고 키워왔던, 창의 인성, 진리, 자율 활동의 결과물들을 아름답게 펼쳐 보여 준 자리였다.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됐는데, 오전 1부 행사에서는 도덕, 국어, 미술, 수학, 기술-가정 등 다양한 교과와 작품을 전시관과 영아, 과학, 진로 탐구 마당, 동아리 활동에서 익힌 작품 전시 마당 그리고 다양한 놀이 및 체험마당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다양한 전시장을 돌아보

며,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승덕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끼를 춤, 노래, 연주, 연극으로 표현하는 공연마당이 펼쳐졌다.

이에 화답해 학부모회에서는 평생교육에서 익힌 뮤지컬 우원을, 선생님들은 특별 무대를 준비해 함께하는 재능 발표의 장을 만들어 냈다. 모든 학생이 스스로 주인공이 돼 즐기는 기쁨의 장이 됐다.

이번 축제는 학생회가 주축이 돼 3월부터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다. 또한, 교육 공동체인 학부모, 교사, 교직원들이 서로 돕고, 딸 흘리며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자리였다.

송석찬 교장은 "이번 축제는 학생들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한 단계 나아가는 장이며, 아울러 학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솜씨를 보고 느끼는 좋은 자리였다. 내내에도 더욱 발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가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축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천정각중학교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인용민 기자 as@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회장 안상성 사장 한승근 발행인/편집인 김진아
 위촉: 06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5길 30(삼성동)
 구독문의/대외연락처 02-541-2000 팩스02-3444-0119 인천본부 032-429-1000
 경원지사 056-242-8921 영남본부054-273-3336 미주본부 443-621-2625
 호남본부 0505-629-3366 FAX 0505-619-3366 전북지사 063-232-3001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늘 곁에 있습니다

01 프린팅 파트너의 역할

- 각종 사무기기의 유지보수 및 A/S
- 전산소모품 및 복사용지의 판매
- 혁신분필

02 조달담당 파트너의 역할

- 각종 특별실의 전선조달담당
- 프로क्टर 및 영상기기, 음향 설비공사
- 전자실란, 문서내단기

03 불용물 처리 파트너의 역할

- 조달불용물의 불용처리 일체담당
- 각종 서류 처리까지 맡김해 해결

불용물처리 및 조달담당자 간담회 참가자들이 간담회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가운데) 조달담당자 발표와 전산지원팀 발표를 마친 후, 간담회 참석자들은 간담회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차분히 마무리하고, 행사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간담회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차분히 마무리하고, 행사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간담회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레이저타운

불용물품 관리전환 전문 Tel.(032)462-3550 Fax.(032)446-2308